

»» 이슈N뉴스

금융IT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살펴봅니다.

>koscom newsroom

—  
국내외  
최신 금융  
IT Issue  
파라잡기

코로나19 시대에 기업 환경과 금융 생태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. ‘데이터 경제’만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전망 속에서 성공적인 데이터 시대 개막을 위한 정부와 산업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. 데이터 경제의 정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.

# 국내 클라우드 시장 급부상, 춘추전국 시대 개막 ①

## 클라우드 시장 환경의 변화로 국내 시장 폭발적 성장

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비대면 환경 구축 및 정부의 디지털 뉴딜 계획 시행 등으로  
행정·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급증 전망.  
2020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.

### 브랜드? 안전성?

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중심으로 AWS, 구글, MS, 오라클 등의 수요가 높지만,  
민감 정보 활용과 서비스 확장성 및 AS 등을 보면 국내 기업 수요도 높을 예정.

### 클라우드 기업 국내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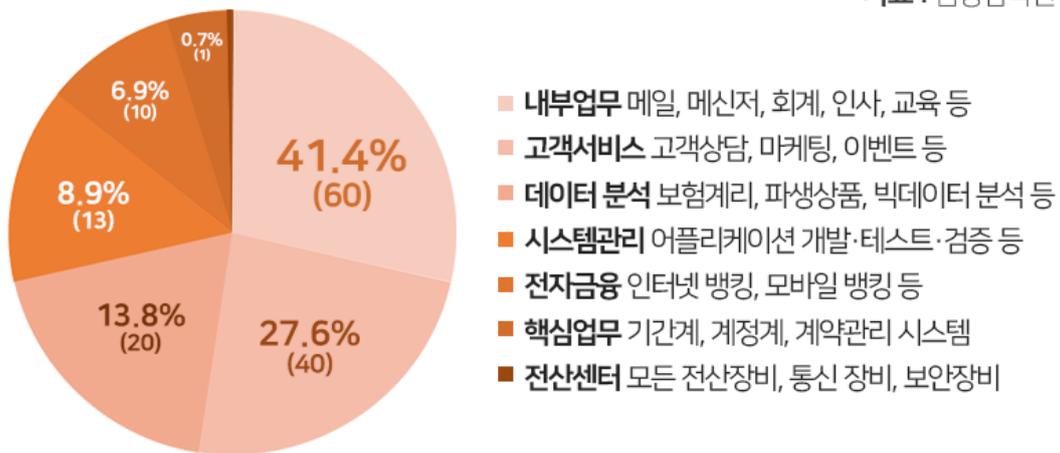
글로벌		국내	
	서울 리전에 4번째 가용역역 추가, 앤티지 기기 아웃포스트 '웨이브랜스' 설치 등 *시스코, LG전자 등과 '이노베이션 카운실' 발족		세종시에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
	서울, 부산 클라우드 리전에 이어 부산에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. *삼성, LG와 파트너십 체결		현대산업개발과의 협업으로 김해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 건립
	3개 가용영역으로 구성된 서울 리전 올초 첫 오픈		수도권에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
	2019년 5월 서울 리전 개소 이어 지난 5월 춘천에 리전 설립		SaaS형 콜센터 활용 재택근무 콜센터 서비스를 클라우드상 신속 구현

## 국내 클라우드 시장 급부상, 춘추 전국 시대 개막 ②

금융권 클라우드 시장도 향후 핵심업무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

### 클라우드 이용 분야

자료 : 금융감독원



국내 금융회사 10곳 중 3.8개사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, 핵심 업무 적용 비중 낮은 것으로 파악.  
현재 내부 업무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향후 전자금융,  
데이터 분석 등 중요 업무에서 클라우드 도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.

# ‘데이터 댐’ 성공 초석 데이터 3법 손질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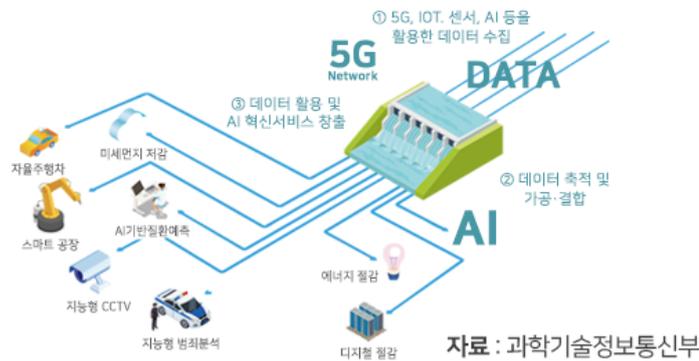
## 양질의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 가능한 환경 마련 절실

‘디지털 뉴딜’의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 댐 건설이 강조되는 가운데,  
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모든 데이터를 기업 활용 가능하도록 한 환경 마련 절실.  
이에 정부는 데이터 댐 건설 성공 위한 초석으로 지난 3월 발표한 데이터 3법 ‘독소조항’ 개선.

“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 
‘대한민국 대전환’의 선언이다. ‘데이터 댐’ 구축이 필요하다”

\_문재인 대통령(7월 14일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중)

### 디지털 뉴딜의 D.N.A 생태계와 데이터 댐 개념도



# ‘데이터 댐’ 성공 초석 데이터 3법 손질 ②

##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수정안 재입법예고

데이터 3법 중 논란의 대상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업계 내 긍정적 평가 분위기. 하지만 여전히 ‘과도한 형사처벌’과 ‘불확실성 우려’ 등이 있다는 분석 제기.

###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쟁점

조항	내용	쟁점	재입법예고
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 기준 (제14조의2)	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,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, 제3자 이익 침해 방지, 가명 처리 의무 등 4가지 조건 모두 충족	기존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한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상당한’ 삭제</li> <li>• ‘정황 또는 처리 관행’으로 수정</li> <li>• 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’ 완화</li> </ul>
가명정보 결합절차 (제29조의2, 3)	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전문기관 거쳐야 함. 결합전문기관 내 물리적 공간에서만 분석 가능	신용정보법과의 형평성 문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반출제한 조항 삭제 검토</li> </ul>
가명정보 폐기 (제29조의5)	가명정보 폐기 의무화	과도한 입법권 침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삭제</li> </ul>

“시행령 내 불확실성 해소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필요”

\_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

“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”

\_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
#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시대, 사설인증이 뜬다!

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였던 '공인인증서'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,

**패스(PASS) 인증서 등 사설인증 도입 본격 경쟁.**

국내 인증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권 및 비금융권 움직임 가시화



## NH농협은행, 첫 사설인증 도입

오는 9월 시중은행에 처음으로 패스 인증서 적용.

지난 7월 13일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협약 체결하고

'올원뱅크'와 패스 앱 연계,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 편의성 높일 예정.



## 뱅크사인, 금융결제원 이관

지난 7월 14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의 뱅크사인 양해각서 체결.

뱅크사인 가입자수가 현저히 적은 가운데 연합회와 결제원이 힘을 합쳐 서비스 내실화 구축 전망.

# 스마트폰으로 이제 banking하는 시대 활짝

지난 7월 22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 
스마트폰(6월 한 달간 안드로이드 대상) 이용자들이 **쇼핑·게임 앱보다**  
**은행·증권 등 금융 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.**

## |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앱? |

네이버·구글·다음 등 포털 앱 3,750만 명  
카카오톡·밴드·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앱 3,725만 명  
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·음원·방송 등 오락 앱 3,560만 명  
은행·증권 등 금융 앱 3,116만 명  
쿠팡·11번가·G마켓 등 쇼핑 앱 2,363만 명

## | 금융 앱 중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앱? |

카카오뱅크	국민은행 스타뱅킹	NH스마트뱅킹
		
이용자 754만 명	이용자 659만 명	이용자 615만 명

\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
\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